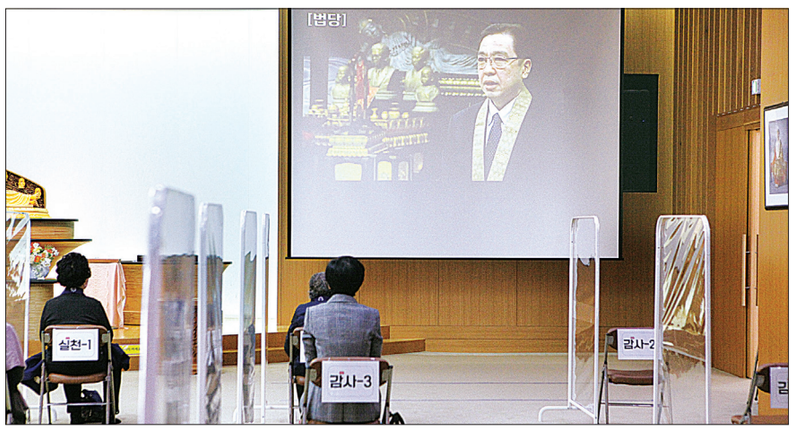
세계 15만 불자 함께한 신뇨엔 寒수행 〈한〉

1월 20일~2월 4일 16일간 정진

세계 50개국 15만 해외신도
한수행으로 일년 정진 다짐
세계 국제포교 모델 제시해
코로나19 앞선 방역 선보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신뇨엔은 1월 20일 한수행 입재 법회를 전 세계에 동시 시작했다. 사진 왼쪽은 신뇨엔 입재법회 모습. 사진 오른쪽은 정진에 쓰인 통역 리시버.

전 세계 50개국 15만 해외신도들이 일제히 신뇨엔 한(寒)수행에 입재했다. 한수행은 신뇨엔 전통 수행으로 새해를 맞아 일 년 동안 정진할 것을 다짐하고 겨울 기간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는 신심정화 수행이다. 이번 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 세계 신도들이 빠짐없이 동참해 현대 비대면 시대와 세계 국제포교의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다.

신뇨엔(원주 이토 신소)은 1월 20일 한수행 입재 법회를 전 세계에 걸쳐 시작했다. 한수행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한 신뇨엔 부산정사에는 10여 명의 신도들이 3층 법당에 모였다. 신뇨엔 소의경전인 〈열반경〉을 기준으로 조성된 법단에는 열반상이 모셔져 있었다. 신도들은 우리나라 삼귀의에 해당하는 삼귀의문 및 오계, 개경계 등 예불을 올렸고 참회문과 독경으로 마음을 모았다. 일본어로 진행하는 예불이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불자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나오는 예불문에 맞춰 합장하고 귀를 기울였다. 이어 체험담이 진행됐고 국제 원장 마츠나가 아츠시의 법문이 이어졌다.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포교와 실천을 통한 성장이 없다면 진정한 동참이 아니다"며 "마음을 굳건히 하고 철저한 결실을 보여주는 실천을 결심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회는 개인기도 및 발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됐다.

한수행은 1월 20일부터 16일간 진행되며 정화를 상징하는 개백과 실천을 강조하는 중원, 정진과 원력을 다짐하는 결원 총 3가지 기간으로 나뉜다. 개백 기간 동안 불자들은 법회에 참석하고 참회 및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중원 기간에는 지역 봉사 및 나눔으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정진한다. 마지막으로 결원 기간 동안 마음을 새롭게 다지며 일 년 동안 지킬 원력과 정진을 결심한다. 한수행 후 1년 동안 신도들은 정진 수첩에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작성하며 자신을 돌아본다. 한수행은 마음을 다잡고 오랜 기간 실천을 통해 성장을 꾀하는 수행 프로그램이다.

한수행은 1936년 신뇨엔 개조인 이토 신조가 새벽에 얼음물을 끼얹으며 30일 동안 정진한 수행이 계기가 됐다. 제1회는 다치카와시 임시 수행처에서 시작됐으며 현재 50개국에 전파됐다. 현재 한수행은 새벽정진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하루 4차례 혹은 5차례 등으로 법회를 나눠 진행해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개조의 발자취를 따라 지금까지의 자신을 돌아보고(Reflect), 새로운 깨달음과 활력을 얻고(Recharge), 목표를 바로잡아(Refocus) 성장을 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한수행에 동참하는 불자들은 삶의 변화 뿐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를 얻는 시간이 된다고 밝혔다.

이헌조(65 ·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불자는 "한수행에 동참한 것은 20년 정도 되었다"며 "정화 기간인 개백 중에는 지난해 묶은 마음의 찌꺼기를 해결하고 실천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며 "따뜻한 마음이 가득해진 자신을 보며 그 힘을 바탕으로 일 년 동안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새롭게 성장하는 자신을 본다"고 말했다.

이현하(37 · 부산 금정구 구서동)불자는 "11년 전에 신뇨엔을 알았고 정진을 한 것은 5년이 되었다. 한수행을 통해 안 좋았던 생각과 습관들이 바뀌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도 건강하게 이겨 낼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특히 신뇨엔은 이번 코로나 방역을 위한 철저한 예방 시스템과 국제 포교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눈길을 끌었다.

신뇨엔 부산정사에는 국제 통역가를 위한 공간이 따로 구비되어 있었고 동시통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통역 리시버도 있어 실시간 법회에도 무리가 없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전 세계 신뇨엔 불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 정기 법회 뿐 아니라 한수행과 같은 프로그램 진행도 다함께 동참이 가능했다.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폐관된 나라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고민을 듣고 충고를 해주며 신행을 돕고 있다"며 "국제 포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언어였다. 문화차이를 확인하며 존중하고 전할 방법을 고심했다. 앞으로도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세계에 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통도사, 양산 지역 성금 2000만원 전달

1월 15일 '양산시 저소득층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개최



영축총림 통도사가 양산시 소외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했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1월 15일 양산 시청에서 '양산시 저소득층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성금은 총 2000만원이며 지역 소외이웃을 위해 회향될 예정이다. 성금은 통도사 대중스님들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식에는 통도사 총무국장 종현 스님, 기획국장 지범 스님, 사회국장 성오 스님, 김일권 양산시장이 참석했다.

통도사는 "추운 겨울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겨운 시간을 보낼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시길 기원한다"며 "아울러 코로나 방역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양산시 공무원에게도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광주 소원정사 서구청에 팥죽 전달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는 1월 21일 광주 서구청에 코로나19로 수고하는 공직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단팥죽 500그릇을 전달했다. 자비신행회와 서구청불자회(회장 손회숙)가 후원한 이날 전달식에는 도계 스님,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 손회숙 회장, 서대석 구청이 참여한 가운데 전달됐다.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팥죽을 먹고 힘을 내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기사장

모이지 않아도 성도정진 열기 후끈

유튜브 및 줌 통해 특별 정진

홍법사 유튜브 참선 정진
포교사단 부산, 독송수행
원오사 줌으로 특별 정진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성도재일을 맞아 각 사찰마다 정진의 열기가 뜨겁다. 코로나 19로 인해 법당 출입은 제한됐지만 온라인 비대면 정진 수행을 통해 안전과 수행을 동시에 잡았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1월 18일~20일 성도재일 참선 정진을 대광명전에서 진행했다. 정진은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법당에는 스님들이 모여 정진을 이어갔다. 홍법사는 유튜브 '홍법 TV'로 실시간 동참을 도왔으며 정진기간 동안 불자들은 각 가정에서 참선 정진으로 성도재일을 맞았다. 홍법사는 매년 성도재일을 맞아 철야정진을 이어왔다. 올해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유튜브 비대면 참선 정진으로 성도재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홍법사는 〈천수경〉을 시작으로 정진을 시작했고 참선에 대한 설명과 참선정진, 법문 순으로 진행했다.

홍법사는 "성도재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다. 불교에서 4대 명절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며 "성도재일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인천의 스승이 되신 날이 바로 성도재일이며 불교의 시작일이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은 성도재일을 맞아 1월 20일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을 진행했다. 부산지역단 포교사 676명 전원이 동참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각 가정에서 독송하고 팀별로 보고해 완독을 알렸다.

정분남 단장은 "관세음보살보문품은 부처님의 자비경전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성도재일, 다름 아닌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진행한 것은 깨달음에 자비가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며 "자비에는 적이 없다해서 자비무적이라 했다. 포교사 모두가 자비보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독송했다"고 말했다.



홍법TV - 홍법사 대중스님과 함께 참선 정진 / 2021년 1월 20일(수)

성도재일을 맞아 비대면 수행정진 열기가 뜨거웠다. 사진은 홍법사 홍법TV 모습

한편,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동안거 기간 동안 〈법화경〉 독송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법화경〉 독송 정진 회향은 2월 7일이며 이에 앞서 범어사 대중스님들을 위한 대중공양을 진행한다. 대중공양비는 정진에 동참한 포교사들이 보시함에 십시일반 넣어 모금한 것이다.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는 1월 17일~20일 성도재일 특별정진을 줌(zoom)을 통해 진행했다. 동참자들은 정진 시간에 맞춰 접속해 수행 동참했으며 20일 새벽예불 시간에 회향했다. 특별 정진은 금강경 독송과 좌선, 발원문, 축복경, 반야심경, 사홍서원 순으로 마무리 됐다.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은 "성도재일은 수행자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어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불교 최고의 명절이다"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도재일을 맞아 수행정진 함으로 깨달음을 향한 원력을 놓치지 말자"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동국대 경주병원 중환자실 1등급 획득

동국대 경주병원(병원장 이동석)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만 18세 이상 중환자실 환자의 입원진료분으로 전국 287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율 등 7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이동석 병원장은 "앞으로도 중환자를 위한 최상의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靈영通통 비구·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거나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간질, 정신질환, 여러 가지 고질병 등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 암치료도 가능)을 전수해드립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 정 지광 / 총무원장 동진 합장

대인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노혜2길 162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